

빙그레 유제품 가격인상에 대한 설명

< 보도 주요 내용 >

5월 9일(금) 파이낸셜뉴스 「빙그레, 발효식품 가격도 올린다」에서 “지난 3월 아이스크림과 커피, 과채음료 제품의 가격 인상 이후 요플레 오리지널 멀티, 닥터캡슐 가격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인상한다”는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.

<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>

정부는 물가 부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의 가공식품 가격인상 시 품목, 인상률 및 인상시기 조정 등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.

빙그레측에는 유제품의 주원료인 국내 음용유용 원유가격이 동결*되었고 최근 동 회사 다른 제품의 가격인상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제품 가격 인상 자제 및 인상 시기 이연을 요청하였으나, 빙그레측은 유제품에 첨가 되는 국내 감귤농축액, 수입 딸기시럽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이달 말부터 제품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유통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.

* 국내 음용유용 원유가격(원/ℓ) : (23.10) 1,084 → (24.8~) 1,084(동결)

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,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·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원가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불합리하게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유미선 (044-201-2111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식 (044-201-2123)